

세계 곡물가 · 선임 고공행진 지속될 듯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본회 이한필 전무이사



옥수수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가와 해상운임의 고공행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환율(원/달러) 또한 850~10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사료협회와 미국곡물협회가 지난 11월 29일 업계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트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고곡가 시대, 사료·곡물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주제에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상수 과장이 '2008년도 축산·사료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2주제는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 김용준 부장의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제3주제에는 CME/CBOT의 유태석 이사가 '국제선물시장과 거래소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제4주제는 미 아이오와 주립대 심라 토고즈 박사의 '세계 및 미국의 사료곡물 수급전망', 제5주제는 미 캔사스 주립대 제이 오네일 박사가 '곡물수송 선임의 근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날 심라 토고즈 박사는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미국의 에탄올 정책이 주요 원인인데 미국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 만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이제 저곡가 시대는 끝났으므로 고곡가 시대를 맞아 모든 경영이나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김용준 부장은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앞으로 850~1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사료업계는 환 관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태석 이사는 "이제 현물거래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사료업계는 시시각각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움직여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돈 주고 중개인에게 사는 것에서 탈피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가격 안정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을 역설했다.

제이 오네일 박사는 "선임이 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항구에서의 적체현상 때문"이라며 중국 등에서의 경제성장이 진정되면 최근과 같은 이런 현상은 줄어들겠지만 90~100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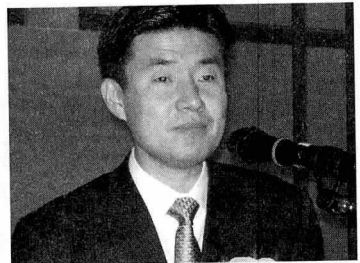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지금과 같이 세계 사료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개최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수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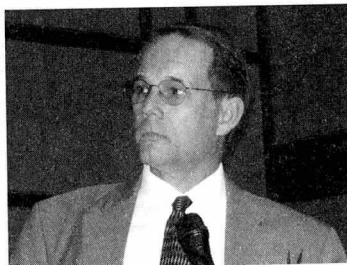
▲유태석 이사



▲김용준 부장



▲심라 토고즈 박사



▲제이 오네일 박사